

# 국내 픽업트럭 지형 바꿨다…기아 타스만 ‘돌풍’

두 달만에 1344대 판매…완성차 업계 월 평균 판매량 넘어서  
침수로 운행도 거뜬…안정된 승차감에 일상·레저 활동도 강점

기아가 아침 차계 첫선을 보인 픽업트럭 모델 ‘더 기아 타스만(The Kia Tasman-타스만)’이 역대 급 판매량을 기록하며, 픽업트럭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일상과 레저를 함께 즐기는 최신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최첨단 기능 탑재와 기존 픽업트럭에서 볼 수 없었던 세련된 디자인 등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12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 2월 계약을 시작한 타스만은 4월 말 기준 총 1344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월 평균 총 픽업트럭 판매량(1123대)을 넘어선 수치다.

타스만은 오프로드가 아니더라도 일상과 레저 활동 속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매력으로 꼽힌다.

타스만은 캠핑이나 ‘차박’에 유용한 베드(적재 공간) 커버, 슬라이딩 베드 등 원하는 대로 ‘커스터

마이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픽업트럭이 집 신는 차라는 인식을 깨고, 최신 세단 등에 못지 않은 승차감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핸들(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안전 운행을 돕는 첨단 기능은 물론 실내에는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폴딩 콘솔 테이블, 듀얼 타입 무선 충전 시스템 등을 갖춘 덕분에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다른 기능으로 오프로드 특화 모델 엑스프로 전용 사양인 ‘락(Rock)’ 모드와 ‘X-트렉(TREK)’ 모드 등도 매력적이다. 락 모드는 산악 지형에 특화됐으며 X-트렉 모드는 페달 조작 없이 차가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전진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이다.

타스만에 적용된 4WD 시스템은 샌드, 머드, 스노우 등 터레인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노면을 판단해 적합한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모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차량 내 화면에 차량 하부 노면을 보여줘 운전자의 정확한 차량 조작을 돕는 ‘그라운드 뷰 모니터’와 엔진과 변속기 오일류 온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프로드 페이지’ 등은 오프로드 마니아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옵션이다.

이 밖에도 타스만의 숨은 매력으로 집중 호우시 물길을 뚫고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타스만은 흡기구를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펜더 내부 상단에 적용해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도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일반 주행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것도 강점이다.

타스만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다.

타스만의 가격은 기본모델인 다이내믹 3750만원, 어드벤처 4110만원, 엑스트림 4490만원이며, 특화 모델인 X-Pro는 5240만원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 기아 타스만. <기아 제공>



현대차 아이오닉 9.



기아 EV3.

## 현대차 아이오닉 9·기아 EV3,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현대차 8차례 수상 기록

현대자동차그룹은 “탑기어(TopGear)가 주관하는 ‘2025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2025 TopGear.com Electric Awards)’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9와 기아차 EV3가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오닉 9는 ‘최고의 7인승 전기차(Best seven seat EV)’에, 기아 EV3는 ‘최고의 크로스오버 전기차(Best EV crossover)’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는 2020년부터 진행된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에서 총 8차례의 수상 기록을 세워 유럽 지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정상급의 상품성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아이오닉 9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차량’으로 인정받았다. 잭 리스 탑기어 편집장은 “현대차가 또 한 번 디자인 감각과 유용한 아이디어를 잘 결합해 냈다”고 평가했다.

EV3는 중형차 같은 여유로운 주행감이 높게 평

가됐다. 올리 큐 탑기어 수석 시승 에디터는 “EV3는 중형차 같은 여유로운 주행감, 뛰어난 정숙성이 인상적”이라며 “악조건 속에서도 무리 없이 주행해 차와 깊이 교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현대차의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제네시스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브랜드 전용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와 협업한 전시 ‘더 포레스트 위딘(The Forest Within)’을 공개했다. <제네시스 제공>

## 제네시스, 뉴욕 맨해튼서 ‘한국의 숲’ 알린다

### 기네스 팰트로 협업…‘더 포레스트 위딘’ 전시 공개

제네시스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브랜드 전용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Genesis House)’에서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Gwyneth Paltrow)와 협업한 전시 ‘더 포레스트 위딘(The Forest Within)’을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더 포레스트 위딘’으로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된 체험형 전시를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6월 29일(현지시간)까지 ‘제네시스 하우스’ 지하 전시 공간 ‘셀러 스테이지(Cel-

lar Stage)’에서 진행되며 관람객은 소백산에서 착안한 자연 속을 걷는 여정을 기네스 팰트로의 내레이션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체험 공간은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호랑이와 바위, 숲, 꽃 등 한국 자연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한국적 자연관과 미적 감성을 세계인에게 전달하려는 브랜드 철학의 연장선”이라며 “기네스 팰트로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

## 만트럭버스코리아, 노후 경유트럭 폐차 지원

### 다음달까지 최대 1000만원 할인

독일 프리미엄 상용차 브랜드 만트럭버스 그룹(MAN Truck & Bus SE)의 한국법인 만트럭버스코리아(만트럭)는 “오는 6월 30일까지 노후 경

유트럭을 폐차하고, 신차로 만트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조기 폐차 지원 캠페인’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트럭 전 차종이며, 차종에 따라

뉴 MAN TGX 및 뉴 MAN TGS 구매 시 최대 1000만원, 뉴 MAN TGM 및 뉴 MAN TGL 구매 시 최대 50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존 만트럭 고객의 경우 추가로 2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만트럭 공식 웹사이트(www.mantruck.co.kr) 또는 전국 영업 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